

日本の 石油製品 수입현황과 전망

1. 製品수입 자유화

日本の 석유제품 수입에 있어 법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관세할당제(TQ 제)가 채택된 重油 뿐이고, 다른 유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었는데, 소비자 정제주의를 기조로 한 通産省의 행정지도에 의해 제품수입은 주로 국내생산 부족분에 한정되었다. 제품수입은 82년 이후 자유화된 나프타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 83년도 내수에 대한 제품수입 비율은 약 14%에 달해 유럽 각국과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85년경부터 휘발유를 포함해 제품수입의 자유화 확대를 요구하는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류부문 참가를 노린 中東산유국이 수출용 정제공장을 계속 신설해 국제시장에 대한 커다란 공급압력이 예상되고, 둘째, 日本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대외 경제마찰이 격화,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 자유화, 수입확대를 요구하는 국제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日本 석유제품 수입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자유화에 대해 日本 석유업계는 소비자 정제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제품수입의 전면 자유화에 반대했다.

① 製品수입확대는 국내石油수급 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고, 국내 정유공장의 가동률 저하를 초래해 고용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② 수입제품은 原油에 비해 가격, 수량 모두 변동폭이 커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③ 製品수입 확대는 中東지역에서의 수입증가를 초래해 中東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④ 경제마찰 관계도 수요를 일정하게 하면 제품수입 증가는 原油수입을 감소시키므로 무역수지 흑자 시정에는 이바지 할 수 없다.

그러나 自由化 논의는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진행되었고, 85년 9월 石油審議會는 소비자 정제주의를 기본으로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석유제품 수입의 조화있는 확대를 꾀하기 위해 여건정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곧 「특정석유제품 수입잠정 조치법」을 같은해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86년 1월6일 시행했다.

이 법은 특정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수입에는 정제설비를 갖추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게 해 결과적으로 석유정제업자가 製品수입의 주체가 되게 되었다. 또 이 법은 石油業法을 보충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는 석유업법에서 정해진 수입계획 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대한 通産省 장관의 변경 권고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질서한 수입증가에

〈表-1〉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추이

(단위 : 1,000Kl, %)

	1986. 1~3월	1986. 4~9월	1986. 10~ 87. 3월	1986 회계년도	1987. 4~9월	1987. 10~12월
(내수에 대한 수입비율)	(6.0)	(8.3)	(11.2)	(9.7)	(10.7)	(12.3)
휘발유	530	1,566	2,100	3,666	2,065	1,220
(공급계획에 의한 수입량)	(460)	(1,050)	(1,000)	(2,050)	(1,850)	(1,840)*
燈油	(5.3)	(4.2)	(15.8)	(12.8)	(34.5)	(24.7)
	1,010	279	2,963	3,242	2,309	2,100
	(200)	(100)	(900)	(1,000)	(830)	(2,350)*
輕油	(3.7)	(1.9)	(6.9)	(4.5)	(15.5)	(15.9)
	238	252	973	1,225	2,194	1,273
	(30)	(200)	(200)	(400)	(600)	(650)*
計	(6.8)	(5.4)	(11.7)	(9.0)	(13.0)	(17.4)
	1,778	2,097	6,036	8,133	6,568	4,593
	(690)	(1,350)	(2,100)	(3,450)	(3,280)	(4,840)*

註 : *는 87회계년도 하반기 계획량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製品수입의 대폭적인 확대

2년동안 제품수입 확대 추이를 살펴보자. 수입 유종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 동향이고, 나프타, B-C油 등의 수입은 그 성격상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량은 각 시기별로 「석유공급계획」에서 예상한 수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87년도 3개 제품 수입량의 합계가 86년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수입비율도 86년도 초에는 몇 % 정도였는데 현재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그중 휘발유는 생산량과 수입량이 동시에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86년도 실적은 계획을 크게 상회했는데(생산량은 감소) 87년도는 석유업체가 「수요증가분을 생산증가로 대응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해 계획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燈油·輕油 수입의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큰 증가이다. 86년도 하반기 이후 燈油와 輕油 두 제품의 수입량을 보면, 공급 계획에 따른 수입량과 비교해 계획량의 3배가 수입되었고, 특히 燈油의 수입비율은

〈表-2〉 주요국가별 제품수입 비율

(단위 : %)

	日本	美國	西獨	英國	프랑스
1986.	20.7	9.8	24.7	11.3	21.4
1987. 1~6월	24.7	9.5	26.3	9.1	25.8

註: 1) 제품수입비율 = (일반수입 + 보세수입) / 내수량
2) 유럽 각국은 EC 역내수입 제외

87년도에 들어서면 내수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착도가 가장 높은 燈油의 공급 원중 많은 부분이, 原油에 비해 불안정한 수입제품중에서도 특히 제한된 해외 燈油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전체 제품 수입량에 있어서도 자유화 이전에 이미 北美·유럽과 비슷한 수입비율에 달했었는데, 86년에는 주요국 평균 수준을 상회했고, 87년 상반기에는 더욱 그 격차가 확대되었고 자유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지나치게 아니냐는 평가도 받을 만하다.〈표-2〉

3. 燈油·輕油의 수입증가원인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등유·경유의 수입이 증가한

〈表-3〉 내수, 원유정제 및 제품수입의 전년대비 신장률 추이

(단위 : %)

	1986. 4~9월	1986. 10~87. 3월	1986회계년도	1987. 3~9
연료유내수량	0.2	2.8	1.6	4.5
원유정제량	△ 6.7	△ 6.4	△ 6.5	0
내수용제품수입	27.2	42.1	35.4	51.2

〈表-4〉 상업증류 장치 가동률 추이

(단위 : 1,000B/D)

	1984	1985	1986년도 상반기 (86. 4~9월)	1986년도 하반기 (86. 10~87. 3월)	1986회계년도	1987년도 상반기 (87. 3~9월)
정제설비량	4,973	4,973	4,901	277폐기 4,782	4,782	4,696
가동률	65.4	62.2	53.6 ↓ (1.6)	64.3 ↓ (4.0)	58.9 ↓ (2.8)	56.1 ↓ (4.0)
가동률*	-	-	55.2	68.3	61.7	60.1

註 : *는 제품수입량을 공급계획에 해당하는 물량만 수입한 경우의 가동률 계산치

것일까. 비용면에서 생산품보다 수입품 쪽이 낮았기 때문은 아니다. 87년 평균 原油 통관 CIF 가격은 배럴당 18달러를 약간 밑돌았었는데, 수입燈油는 약 24.50달러 수입輕油는 약 23달러 였었다. 또 생산품은 정제등 제비용이 kℓ당 1,500円이상 든다하더라도 여전히 생산품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kℓ당 2,000~3,000円이 싸다.

수입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通産省의 原油 정제 억제 지도에 따라 수요증가분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품에 의한 공급을 강화한 것이다. 제품수입이 자유화된 86년에는 原油 가격 급락, 円高현상에 의해 수입 비용이 전년비 1.3% 감소한데 비해 실적은 1.6% 증가, 결과적으로 3% 가까이 상회했다. 87년도에 들어서도 상반기의 계획량은 전년비 0.4% 감소한데 비해 실적은 4.5% 증가해 5% 가까이 상회했다. 내수 증가는 경쟁원료와의 가격면에서 유리해진 B-C油 수요증가에 의한것이 대부분이지만, 燈油 등 중간유분의 수요도 가격효과가 반영되었고, 국내 경기 회복으로 B-A油의 수요도 더욱 신장 되었다.

이 수요증가에 대해 어떻게 공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通産省의 행정지도는 일관 原油처리(=국내생산)를 억제하고 수요증가분은 오로지 제품수입 확대를 통해 조달

하는 방향이었다. 그 결과 〈表-3〉과 같이, 내수는 항상 전년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原油정제량은 항상 전년을 하회해 제품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정제설비가 전체의 6%에 가까운 28만B/D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이전보다 떨어져 〈表-4〉와 같이 60%를 밑돌게 되었다. 반대로 제품수입이 당초 계획과 같이 억제되었더라면 (수요증가에 대해 생산과 수입을 알맞게 증가시킨다) 60%를 밑돌지는 않았으리라는 계산이 나오고, 설비폐기를 행한 석유회사에 그 효과가 수익면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日本의 제품수입선의 약 2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의 정유공장은 일찌기 수요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곤란을 받아 인근 국가로부터 수탁정제를 받아 가동을 겨우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日本의 수입급증에 따라 가동률이 급속히 높아졌고(87년도 80%를 넘었다) 2차 설비의 증설도 계획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 영향으로 싱가포르의 제품시황은 로테르담등과 비교해 높게 변화하고 있다.

철강 조선 업종처럼 円高로 인한 순수비용 부담 증가

로 국내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은 부득이하지만, 석유산업에 있어서 「국내가동 저하, 해외가동 고조」라는 현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通産省이 原油정제량을 의식적으로 엄격하게 억제하는 배경에는 정제설비의 폐기를 촉진시켜 北美·유럽과 비슷한 가동율로 올리고, 또 제품수입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에 따라 87년 5월에 발표된 「석유산업 기본문제 검토 위원회」 보고서의 요점의 하나인 「일본석유 제품가격 국제화」를 도모해 나가는 자세가 크게 엮여있다.

4. 燈油·輕油 수입자유화가 초래한 시황침체

수입자유화 이후의 2년간은 석유업계에 있어서 原油가

격 하락과 円高라고 하는 호조건으로 혜택받은 시기였음

〈表-5〉 제품판매가격 추이

(단위 : 円/ℓ)

	1985. 12		1988. 1
휘발유 (고속도로가격)	142	△20	122
輕油 (고속도로가격)	97	△25	72
燈油 (통산성소비자모니터, 배달비 포함)	73	△28	45
	(1,320엔/18ℓ)		(800엔/18ℓ)



日本은 지난 86년 수입自由化 이후, 석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表-6〉 原油·제품 스파트 가격 (86년)

(단위: \$/B)

	原油(WTI)	나 프 타	등 유	중유(유황분 3.5%)
高 가격	19.65	23.50	31.40	18.20
	↓8.65	↓13.10	↓17.40	↓11.20
低 가격	11.00	10.40	14.00	7.00

註: Platt's Price에 의한 제품가격은 로테르담 시장기준.

에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는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최대요인은 중간유분 시황의 침체이다.

과거, 중간유분과 B-C油의 가격차는 kl당 6,000~7,000円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제작년 이후 그 차이가 축소되고 전매업자 가격은 저유황 B-C油 쪽이 燈油에 비해 높아진 시기가 있을 정도였다.

작년말이후 円高, 해외 스파트 시황하락에 의해 제품수입 비용이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燈·輕油 모두 국내 시황은 크게 떨어졌다.

시황침체의 원인중 元賣의 세어확대 지향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자유화 이후 특히 중간유분 가격의 하락 폭이 크게된것은 수급사정에서 기인한다. 즉 수입자유화 이전, 중간유분은 흑한기에 예외적으로 허가된 燈油수입을 제외하고는 국내생산만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原油 처리규제가 시행된 조건하에서는 생산수율에 다소 자유로운 있었지만 공급량은 통제되었다. 그것이 자유화 이후에는 「原油처리규제 + 製品수입자유화 = 공급량 자유화」라는 도식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생산·수입 쌍방에 제약을 받는 휘발유, B-C油에 비해 가격하락폭이 급격했던 것이다.〈表-5〉.

현재와 같은 중간유분 시황을 방지하는 것은 석유업계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제품공업의 불안정함을 초래할 듯하다.

5. 輸入製品價格과 공급원의 불안정

수입제품 가격이 原油에 비해 변동폭이 크게 불안정한 것은 가격이 크게 변동폭을 보인 86년의 스파트 가격 움직임을 보아도 확실하다(表-6).

여기에 덧붙여 제품의 경우 1회 선적 가능량이 적어 탱커 형태의 제약, 주입시설 정비, 국내의 엄격한 제품규

〈表-7〉 수입제품의 사우디, 中東의존도

(단위: %)

	사우디의존도	中東지역의존도
휘발유	4.9	17.7
등 유	44.3	64.4
경 유	54.4	70.4
計	35.3	51.7

〈表-8〉 原油의 사우디·中東의존도 추이

(단위: %)

	사우디	中東
1980	33.0	71.4
1986	13.7	68.0

격에 맞는 품질조정 필요 등등 原油에 비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많다.

한편 국내 전매업자 가격은 종전에는 국내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는데, 수입확대에 따라 해외시황 변동에 따르는 경향이 보인다(제품가격 국제화의 조짐인가?). 또 수입자유화에 있어서 석유업계의 반대이유의 하나가 되어있는 中東의존도를 높일 위험에 대해서는 〈表-7〉과 같이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燈·輕油에 있어서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입이 50%내외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상에서 제품수입 자유화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본 있는데 앞으로 제품수입량은 알맞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미 정책당국에서는 국제적인 배려에서 88년도 수입실적이 내년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가 엿보이는데 현재의 수준이 계속되면 석유업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 (JETI)